

우리 만화 격동의 100년 미술관에 다 모였네

국립현대미술관서 만화-한국만화 100년전 전시

한국만화 100년을 조망하는 대규모 기획전시 '만화-한국만화100년' 전시 한국만화100주년 위원회(위원장 박재동·김동하·이동수·이홍우)와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배순훈) 공동 주최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오는 8월 23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한 '한국만화 100년의 역사', 풍성한 문화콘텐츠로 발전을 거듭해온 '장르만화', 만화의 예술적 가능성을 살펴본 '크로스오버-미술과 만화의 경계 너머' 등 세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한 한국만화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250여명의 작품 1500여점, 만화적 감성과 상상력으로 작업하는 현대미술작품 6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한국만화 100년의 역사 - 한국 만화의 흐름

첫 번째 구역인 '한국만화 100년의 역사'는 각 시대에 대한 회고와 함께 펼쳐졌다. '풍자로 그려낸 저항의 시대' (1909~1930)에서는 애국계몽기의 시대적 감수성을 담고 있는 이도영의 시사만화, 1928년 조선일보에서 시작돼 193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경성의 일상을 다채로운 시각으로 담아낸 안석주의 만문만화(글과 그림이 공존하는 형식) 등을 볼 수 있다. '암울한 시대의 위안' (1945~1970년대)은 전쟁으로 인한 생활의 고달픔에 치진 서민들에게 한 가닥 꿈과 소박한 웃음을 전해주었던 김산호의 SF활극 '라이파이', 방영진의 청소년학원물 '약동이와 영팔이'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만화의 르네상스' 기인 80~90년대에는 김수정의 '아기공룡 둘리'와 이진주

의 '달려라 하니'가 등장하며 성인만화잡지 '만화광장', 청소년만화잡지 '아이큐 점프', 순정만화잡지 '르네상스'가 출간된다. 그 후 인터넷 매체를 기반으로 한 웹툰과 장편서사만화가 등장하는 2000년대 이후 만화의 지형이 펼쳐진다.

장르 만화전

두 번째 구역은 순정만화, 어린이만화, 카툰, 독립만화, 웹툰 등 장르만화에 할애된다. 1950년대 이후 반세기를 이어온 순정만화는 동질성보다 시대별 특성을 강조했다. 50~60년대 작품에서는 소년과 소녀의 가족,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역사적 환경이 드러나며 70년대에는 여성작가들이 시각적·서사적으로

이전과 달라진 만화가 등장한다. 80년대 이후의 순정만화는 남녀 간의 로맨스코드를 더욱 세련된 그림으로 구성된다. 김진의 '바람의 나라', 신일숙의 '아르미안의 네 딸들', 김혜린의 '불의 집' 등도 출품됐다. 어린이만화는 1925년 월간 '어린이' 3월호에 실린 안석주의 6칸만화 '씨동이의 말타기'를 시작으로 길창덕의 '꺼병이', 이두호의 '머털도사' 등 유명한 캐릭터들이 총 등장한다.

크로스오버 전 - 만화와 미술의 경계를 너머

세 번째 구역 '크로스오버'는 미술 이전에 만화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온 예술가들, 고근호·금중기·나얼·마리킴·성태진·이이남·최석운·현태준 등 18명의 미술작품 60여점과 함께 단편만화를 재구성한 창작구체관절인형 전시, 만화 캐릭터를 피겨로 만든 툰토이 등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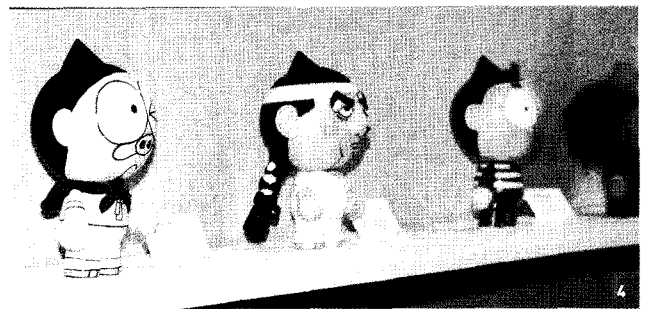
한국미술 속 만화 100년, 만화 100년 속 현대미술 한국미술의 흐름 속에서 성장해온 만화 100년은 현대미술에 이르러 만화와 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미술 이전에 만화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온 일군의 예술가들을 배출했다. 이들은 만화적 표현 방식을 자신의 예술 표현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특정 만화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스토리를 자신의 개인적 표현이나 유머로 활용한다든지 만화적 상상력을 만화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사한다든지 캐릭터를 활용한 감정이입 방식을 구사하는 등 만화가 가진 구조적 장점을 자신들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00년간의 만화 사랑, 365일 계속된다

100주년 기념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6월에는 우수한 우리만화를 모아 반디앤루니스(종로타워점, 코엑스점)와 함께 '우리만화 특별판매전'과 '작가사인회&캐릭터캐치'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21세기 새로운 시사만화의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 시사만화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시사만화포럼'과 '한국시사만화100년전'도 개최된다.

또한 만화계의 오랜 숙원이던 한국만화 100년 총람(1909~2009)도 단행본으로 발행한다. 한국만화 100년에 관한 주요자료 발굴 및 수집, 해석과 재평가를 통해 신문만화, 잡지만화, 만화잡지, 만화단행본, 논문 및 관련저서 등 100년간 축적한 작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재평가를 통해 역사서술 및 자료수집 방식의 체계화로 후속 연구 및 만화 문화의 성숙과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외적으로 "한국만화 100주년"을 알리기 위한 작업들을 조금씩 진행해 왔는데, 그 중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포



1 전시관람에 앞서 테이프커팅식을 하고 있다 2 김동화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3 대한민보 창간호 4 툰토이 캐릭터 인형도 전시되었다 5 네컷만화 6 김성환 화백의 한국전쟁스케치



털사이트 Daum과 함께 만화가들의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 릴레이만화' 연재를 진행하였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올해 한국만화 100주년의 해를 맞아 기념우표를 6월 2일부터 전국의 우체국에서 일반인에게 판매한다.

다시 100년 앞을 보며 정진할 때

우리 만화시장은 연 매출 7616억 원(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과학 학습만화 'Why?' 시리즈가 2001년 첫 출간된 이후 2000여만 부나 팔린 것을 비롯 '마법천자문' 1200여만 부, '메이플스토리' 880여만 부 등 대형 히트작도 나왔다. '마법천자문'은 뮤지컬로 제작돼 공연되고 있고 애니메이션으로도 개발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엔 100여개 만화 관련 학과가 개설돼 매년 수천 명의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산업'로서의 만화는 갈 길이 멀다.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소재의 다양성이 뒤지는데다 유통구조 개선, 파생상품 개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독자를 더 늘리고 해외시장도 개척하려면 무엇보다도 개성있는 그림, 치밀한 구성, 재미있는 스토리 등 '기본' 끌어올려야 할 일이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